百済塔의 復元

姜 奉 辰

국보건설단대표 · 한국전통건축연구분과위원

1. 序 言

扶餘는 옛날 三国時代에 120餘年間이나 百済文化의 꽃이 만발했던 王都였다.

羅唐聯合軍에 짓밟혀 有形文化의 대부분을 약탈당하고 또 戦火에 焼失되었지만 지금도 扶餘에는 어디를 파더라도 화려했던 文化遺物의 破片 등이 계속 발견된다.

그러나 地上의 建造物은 나라 滅亡時에 대부분이 滅失되었고 塔婆 등 石造遺物이 몇基 남아 있을 뿐이다.

이중 하나인 扶餘定林寺址 5층 石塔은 国宝 9號로서 行政区域上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79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花崗石으로 築造한 것이지만 흡사 木造建築 모양으로 繊細하고 軽快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益山 彌勒寺址石塔)과 함께 百済末期의 서기 7세기 초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石塔은 원래 백제시대의 사찰이었던 定林寺의 금당(金堂= 本尊佛을 모시는 佛堂) 남쪽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수차의 兵火로 인하여 寺刹伽藍은 소실되고 석탑만 외로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석탑의 제1층 屋身의 4면에는 당나라의 蘇定方이 백제를 平定했다는 碑文(서기 660년, 唐 顯慶5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일명 平濟塔이라고 속칭 되어 왔으나, 이것은 백제가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멸망한 당시, 이미 그전부터 存在하고 있는 이 石塔을 戦勝碑로 悪用하고 거기에 대단히 모욕적인 落書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扶餘地方에서는 옛날부터 이 石塔을 「百済塔」이라고 불러 내려오고 있다.

2. 百済塔의 구조양식

이 石塔은 地臺石·地臺底石 및 地臺中石과 地臺甲石으로 구성된 나즈막한 1층기단 위에 건립한 것으로, 單間 4면의 方形塔이다.

1층 옥신은 거대한 隅柱石 4개와 각면 2매씩 합계 8매의 面石으로 구성되었고, 그 위에 옥개받침 부연 및 옥개받침의 순서로 1층 屋蓋石을 받고 있다.

2층 이상의 구조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方式으로 축조하였다.

이 石塔의 様式은 益山 彌勒寺址塔과 마찬가지로 木塔飜案様式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한 목탑양식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목탑을 연상케 하는 수법을 쓴 양식으로, 이것은 창의적이고 우아한 百済塔의 固有한 様式이라고 할 수 있다.

3. 百済塔의 추조기법

이 石塔은 평면상으로 볼 때 각층 옥신은 옥신받침 위에 세웠는데 옥신 하부를 약간 넓게 하고 상부를 약간 좁게 逓減하는 手法을 썼으며, 체감율은 1층이 가장 크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적어 진다.

또 입면상으로는 屋身石 위에 木塔의 貢包出目役割을 하는 옥개받침 부연과 옥개받침을 밖으로 내밀어서 얇고 넓은 옥개석을 받치는 수법을 썼으며 옥신은 1층이 가장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얕게 체감하고, 옥개석도 마찬가지로 1층을 가장 넓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좁혀가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법을 쓴 결과 탑 전체가 안전상 있고 매우 경쾌하게 보인다.

이 石塔의 높이는 측정 장소에 따라 8개소의 높이가 각각 다르며, 그중 최대치는 서북측 8.927m, 최소치는 동측 8.888m로서 그 평균치는 8.907m이다.

지대석 평면의 크기는 사면이 각각 다르며 최대치는 동측이 3.722m, 최소치는 북측이 3.705m로서 그 평균치는 3.713m이다.

4. 百済塔의 復元

신라탑의 대표적인 불국사의 多宝塔과 釋迦塔은 1974년에 경주박물관 경내에 각각 復元되었으며, 百済塔은 1982년도에 새로 移転되는 충남대학교 경내에 復元건립 되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千餘年의 오랜 세월 동안 風磨雨洗로 磨耗와 沈下를 일으켜 不遠 倒潰損滅의 危険性을 内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조치로 미리 一基씩 復元한 것이며, 百済塔은 新築移転하는 忠南大学校에서 忠南의 대표적인 国宝를 校庭에 復元함으로써 教育的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復元한 것이다.

百済塔은 오랜 세월에 不同沈下와 뒤틀림 등으로 당초 건립 당시의 척수를 유지하고 있는 部材는 殆無한 상태이며, 탑의 각면의 척수는 각각 서로 다를뿐 아니라 같은 면에 있어서도 部材의 上·中·下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탑을 復元하기 위하여는 元用尺을 찾아내어 復元値数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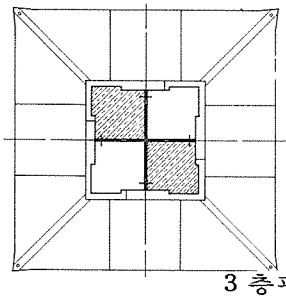
復元値数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現存遺構에 대한 정밀한 実測을 행하여 元用尺과 現用尺과의 비례를 구해야 한다.

百済塔은 각 部材에 대한 비례를 구한 결과, 元用尺 1尺=現用尺 1.0242曲尺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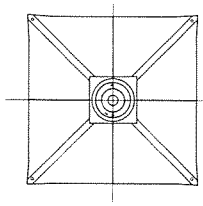
비례로 보아서 唐尺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비율에 의하여 백제탑의 각 部材에 대한 復元値数를 결정하여 図面과 같이 作図한 것이다. (산출과정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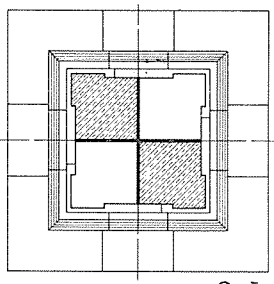
※ 本稿에서 「百済塔」이란 用語를 사용한 것은 扶餘地方에서 사용하는 俗称用語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그것은 定林寺址 五層石塔을 指称한 것으로서 百済時代의 모든 石塔을 指称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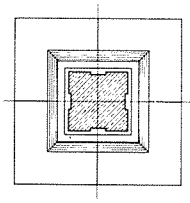
3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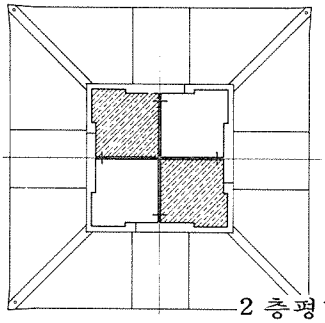
노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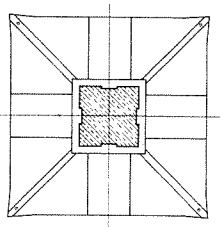
2 층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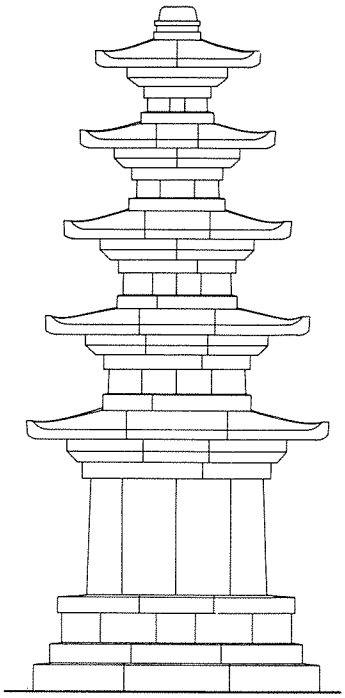
5 층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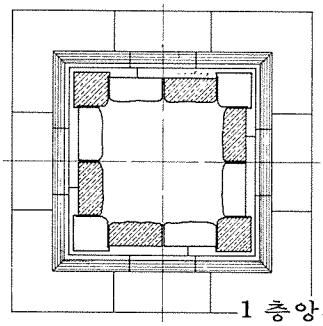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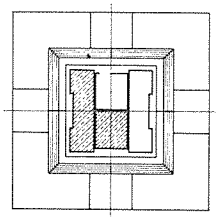
5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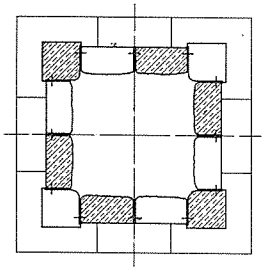
입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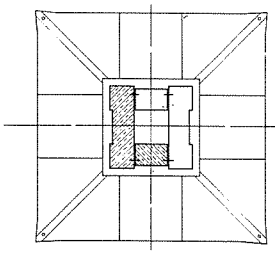
1 층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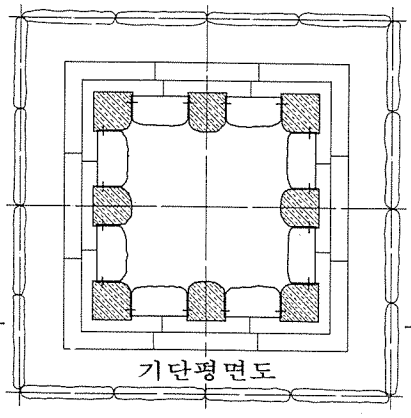
4 층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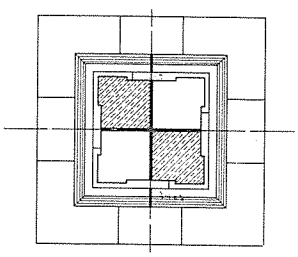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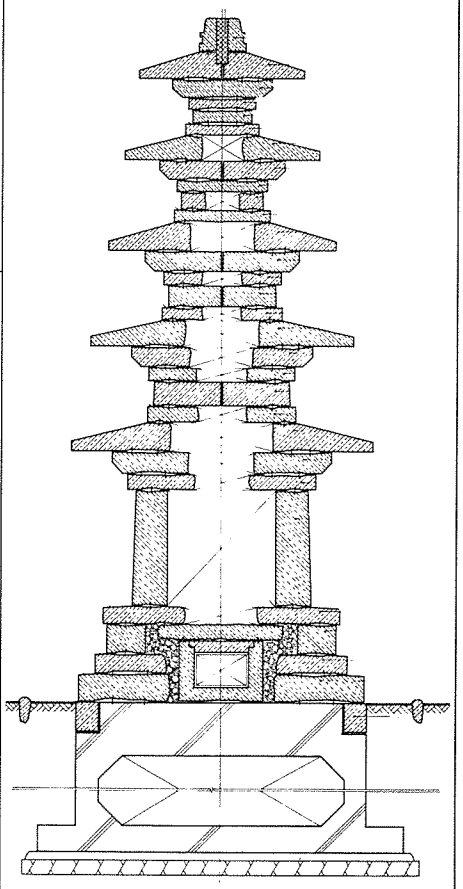
4 층평면도



기단평면도



3 층앙시도



주단면도